

국 어

1.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철수의 장점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
- ② 선생님은 학생들의 애환을 친절하게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 ③ 지금으로써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 ④ 김 씨는 “사람들이 매우 흥분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 ⑤ 가세가 기운 뒤로는 그토록 인심이 후하던 그녀도 점차 야박해져 갔다.

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단어 수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길어지는
 또 하나의 기차가 되어
 먼 길을 가요

- ① 7개
- ② 8개
- ③ 10개
- ④ 12개
- ⑤ 14개

3. 다음은 가사 작품 <상춘곡>의 첫 부분이다. 내용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때,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곳은?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사리 풍류(風流)리 미친 자 곧 미친 자.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하 이 하진마니,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마르 갖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리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리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마약 낄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르다. ㉤수풀에 우니 새난 춘기(春氣)리 마네 계워 소리 니마다 교태(嬌態)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예술의 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른 예술 자체의 변모와도 관련된 것이다. () 예술은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비평가를 포함한 청중 또는 관중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예술 공중은 예술작품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예술 창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술이 매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예술의 사회성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이다. 하나의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예술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으로 또는 관행에 의해 인정된 재료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술의 매체는 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예술가의 예술 활동에 제한을 가한다. 예술은 습관, 경험, 기술의 복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 그것을 통해서 식별된다. 한 사회가 예술이라는 개념을 소유하기 전에, 또는 예술적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수립되기 전에 예술작품의 생산이나 예술적 감상은 존재할 수 없다.

- ① 개인적이고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예술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 ②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 ③ 예술은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며 예술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된다.
- ④ 예술의 연구는 인문주의적 전통 하에서 예술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 ⑤ 예술사회학은 예술과 사회학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상이한 성과를 초래하였다.

5.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맛문하다: 맛깔스럽고 정갈하다.
- ② 손방: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
- ③ 곧추: 굽히거나 구부리지 아니하고 곧게.
- ④ 온새미로: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생긴 그대로의 상태로.
- ⑤ 모꼬지: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ㄱ. 최근에는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 창의성, 예술성 등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엔 전세계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왼쪽은 ‘그르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는가 하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도 있었다. 영어로 왼손잡이를 뜻하는 ‘left-handed’에는 ‘서투른, 신분에 맞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프랑스어로 왼쪽을 의미하는 ‘gauche’에도 ‘비뚤어진, 어색한’이라는 뜻이, 독일어 ‘link’ 역시 ‘의심스러운, 열등한’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단어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는 사람들의 인식에까지 영향을 끼쳐 왼손을 쓰는 아이는 때려가면서까지 고치게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의 슬로건은 독특하다. 전세계의 왼손잡이들에게 모든 것을 왼손으로 다루기 위해서 ‘개인공간을 왼손잡이만의 공간으로 만들라’고 말한다. 오른손잡이인 친구나 동료, 가족들 속에서 왼손잡이인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왼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불편함 속에 고통 받아 왔다는 의미이다.

ㄷ.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나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와 같은 속설로 꾸준히 변해 왔지만, 아직 왼손잡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다. 가위, 카메라 셔터, 컴퓨터 마우스, 자동차 기어, 지하철 개찰구 등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건 대부분이 여전히 오른손잡이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ㄹ. 왼손잡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아는가? 매년 8월 13일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24년째를 맞은, 제법 오래된 기념일인 셈이다. 왼손잡이의 날은 1992년부터 세계 왼손잡이들이 의기투합해 왼손잡이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고충을 알리기 위해 기념하기 시작했다.

- ① ㄱ - ㄷ - ㄴ - ㄹ
- ② ㄷ - ㄱ - ㄴ - ㄹ
- ③ ㄷ - ㄹ - ㄴ - ㄱ
- ④ ㄹ - ㄱ - ㄴ - ㄷ
- ⑤ ㄹ - ㄴ - ㄱ - ㄷ

7. 다음 글의 ㉠~㉣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하여 가능한 한 많은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람들이 기울여 온 노력은 지구촌에 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지상과제 중 하나이다. (㉠)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 시대에 어떻게 먹을거리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 21세기는 먹을거리에 관한 한 ‘풍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풍요의 시대가 ‘약속된 하느님의 뜻’인 것 같지 않다. 일부에서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콩이나 돼지고기를 먹은 우리가 과연 온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 | | | | |
|---|-----|-------|--------|
| | ㉠ | ㉡ | ㉢ |
| ① | 그래서 | - 그러나 | - 그렇지만 |
| ② | 그런데 | - 그리고 | - 심지어 |
| ③ | 그러나 | - 심지어 | - 그리고 |
| ④ | 심지어 | - 그래서 | - 하지만 |
| ⑤ | 하지만 | - 그래서 | - 그러나 |

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서 국어의 어법상 옳은 것은?

- ① 우리 할머니는 항상 옛스러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다니신다.
- ②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연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구정만 됐다고 하더라.
- ③ 학교까지 얼만큼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 ④ 바이올린 신동의 연주가 끝나자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콘서트홀 안을 가득 메웠다.
- ⑤ 여기가 우리의 홈구장이라는 잇점을 감안하면 현재 랭킹에서 좀 밀리지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듯하다.

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저는 (㉠)을 좋아합니다. (㉡)도 좋아하지만 (㉠)을 더 좋아합니다. (㉡)이 포근하고 은근한 누님 같다면 (㉠)은 다정한 형님 같습니다. (㉡)빛이 인자한 어머니의 빛이라면 (㉠)빛은 웬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의 빛이라고 생각됩니다. (㉡)빛은 마냥 따스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 (㉠)빛은 따스하지만 다소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그 차가움이 들뜨기 쉬운 마음을 들뜨지 않게 하고, 때로는 사물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인의 빛이 있다면 (㉡)빛보다는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밤길을 걸어가다가 (㉡)을 바라볼 때보다 (㉠)을 바라볼 때 더 살아 있다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 (㉢)적이라면 (㉠)은 (㉣)적인 것이 아닐까요? (㉡)이 슬픔이라면 (㉠)은 그 슬픔을 껴안고 일어서는 기쁨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은 매일 변하지만 (㉠)은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 ㉠ ㉡ ㉢ ㉣
- ① 달 - 별 - 논리 - 감성
 - ② 별 - 달 - 이성 - 감성
 - ③ 별 - 달 - 감성 - 이성
 - ④ 달 - 별 - 감성 - 이성
 - ⑤ 달 - 별 - 감정 - 논리

10. 다음은 고전소설 <구운몽>의 한 부분이다. 문맥상 밑줄 친 단어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사(大師)의 문하(門下)에 제재(弟子) 수백 인인데, 계행(戒行)이 높고 신통(神通)을 얻은 재(者) 삼십여 인이라. 기중에 ㉠유로 젊은 제자의 이름은 성진(性眞)이니, 얼굴이 백설 같고, 정신이 추수(秋水) 같고, 나이 이십 세에 삼장경문(三藏經文)을 통ㅎ지 못할 것이 없고, 총명(聰明)과 지혜(智慧), 중중(衆中)에 초출(超出)하니, 대재(大師) 크게 중히 여겨 ㉡상해 전도(傳道)할 그릇으로 기대하더라.

대재 매양 제자로 더불어 큰 법(法)을 강론(講論)할 제, 동정 용왕(洞庭龍王)이 백의노인(白衣老人)이 되어 법석(法席)에 참여하여 경을 듣더니, 대재 일일은 제자더러 이르되,

“동정용군(洞庭龍君)이 여러 번 경을 들었으되 일찍 답례를 못 하였으니, 내 늙고 병들어 산문을 나지 않은 지 십여 년이라. 내 몸은 ㉢산문 밖에 가벼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너희 중 누 ㉣수부에 들어가 나를 대신하여 용군에게 회사(回謝)할꼬?”

성진이 가기를 청하거늘, 대재(大師) 기뻐하여 허락하니, 성진이 가사(袈裟)를 정제(整齊)히 하고 ㉤육환장을 이끌고 동정으로 향하여 가니라.

- ① ㉠유로 - 특별히
- ② ㉡상해 - 향상
- ③ ㉢산문 - 절간
- ④ ㉣수부 - 용궁
- ⑤ ㉤육환장 - 여섯 겹의 옷

11. 다음 중 합성어의 수는?

나무꾼, 뒤엎다, 병마개, 엿보다, 작은아버지, 질푸르다, 헛되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 ⑤ 6개

12.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한 것은?

“이 바지는 길이가 너무 짧네요.”

- ① [째네요]
- ② [짤브네요]
- ③ [째네요]
- ④ [짤레요]
- ⑤ [짤네요]

13. 다음 중세국어 짝의 의미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타(좋다)
조타(깨끗하다)
- ② [디다(끓어지다)
지다(떨어지다)
- ③ [녀름(여름)
여름(열매)
- ④ [소(높)
쇼(소)
- ⑤ [물(무리)
믈(물)

14.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이른바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라는 비대칭적인 양분 논리 속에서 후자에 속한 유목기마민족의 역사와 문명이 소외당해 온 것은 분명 문명사 연구의 한 오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대문명을 응징하기 위해 파견된 신의 채찍으로 역사의 그물을 찢고 인류 문명의 한 수레바퀴를 떠밀어 온 위대한 민족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명교류에 미친 영향을 비롯해 그들의 역사와 문명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문명사적 과제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7천 년 전 신생대 제4기 충적세에 들어와서 북방 유라시아에 동서로 긴 지리대가 네 개 형성되었다. 즉 북극해에 면한 동토대와 그 이남의 침엽수림대, 북위 50도 부근의 초원 지대, 그리고 북위 40도 부근의 사막 지대이다.

그 중 초원 지대와 사막 지대는 대규모의 관개수리가 요구되므로 자연 농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생계의 유일한 수단은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이다. 그런데 축산은 목초가 필요하고, 인간이나 가축의 생명 유지는 수원(水源)이 필수이다. 게다가 계절의 변화는 인간이나 가축의 이동을 유발한다. 그 결과 수원이나 목초를 따라,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이동하고 순회하게 된다. 이렇게 가축을 사양하면서 수초를 찾아 가재와 함께 주거지나 활동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통칭 유목민이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유목은 광역적 이동 목축의 주요 행위이며, 성원 대다수가 주기적 목축 이동에 참여하는 특유한 형태의 식량 생산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 ① 유목기마민족은 문명교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 ② 초원 지대에서 자연 농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농업용수의 부족 때문이다.
- ③ 사막 지대에서 인간이나 가축이 이동해야 하는 문제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은 무관하다.
- ④ 가축을 기르면서 물과 풀을 찾아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 부른다.
- ⑤ 유목인 집단에서는 구성원 대다수가 주기적인 이동에 참여한다.

15. 다음은 고전소설 <춘향전>의 한 부분이다.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 때, 향단이는 저의 아기씨 신세를 생각하여, 크게 우던 못하고 체읍(涕泣)하여 우는 말이,

“어찌할거나, 어찌할거나. 도덕 높은 우리 아기씨를 어찌하여 살리시려오? 어찌꺼나요, 어찌꺼나요?”

실성으로 우는 양을 어사또 보시더니, 기가 막혀,

“여봐라, 향단아,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너의 아기씨가 설마 살지 죽을쏘냐. 행실이 지극하면 사는 날이 있느니라.”

춘향모 듣더니,

“애고, 양반이라고 오기(傲氣)는 있어서…….”

“대체 자네가 왜 저 모양인가?”

향단이 하는 말이,

“우리 큰아씨 하는 말을 조금도 괘념(掛念) 마옵소서. 나 많아 노망한 중에 이 일을 당해 놓으니, 왓김에 하는 말을 일분(一分)인들 노하리까? 더운 진지 잡수시오.”

어사또 밥상 받고 생각하니, ()하여 마음이 울적(鬱寂), 오장(五臟)이 윙윙윙, 석반(夕飯)이 맛이 없어,

“향단아, 상 물려라.”

담뱃대 툭툭 떨어,

“여보 장모 춘향이나 좀 보아야하지.”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향단이 여쭙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罷漏] 치거든 가사이다.”

- ① 분기탱천(憤氣撐天)
- ② 동분서주(東奔西走)
- ③ 허장성세(虛張聲勢)
- ④ 은감불원(殷鑑不遠)
- ⑤ 노심초사(勞心焦思)

16. 다음 중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이 짜서 일찍 끝냈구나.
- ② 그렇게 변죽을 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
- ③ 그는 반죽이 좋아 웬만한 일에는 성을 내지 않는다.
- ④ 그는 살이 찌려는지 요즘은 입이 달아 무엇이든 잘 먹는다.
- ⑤ 그녀는 절에 간 색시같이 자발없이 나선다.

17.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기법이 옳은 것은?

어릴 때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도 많았습니다. 시골 완행버스라는 게 장날에는 얼마나 ㉠ 왁짜하고 봄비는지요. 그 ㉡ 복새통을 뚫고 빈자리를 확보해서는 ㉢ 꽤죄죄한 보따리나 가방 하나를 획 던져 놓고 저만치서 ㉣ 쭈뼛거리는 저를 끝끝내 앉히려던 어머니.

삶의 끝자락에 누운 뒤 처음으로 편한 잠 주무시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병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 무연히 콧등이 시큰해져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다보니, 아, 무슨 꿈을 꾸시는지 어머니가 가뭇가뭇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다가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발을 만져 드렸습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1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아무런 증세가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
- ②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
- ③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 ④ 내일 아침이 밝으면 떠나겠다.
- ⑤ 사람은 늡거나 병들면 죽는다.

19. 다음 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은 줄기가 나무질이 아닌 초질(草質)로 이루어진 식물을 일컫는다. 풀의 땅 윗부분은 1년 또는 2년 안에 죽고, 줄기의 관다발에 있는 형성층이 1년이면 그 기능이 정지되며, 처음에 생긴 물관부 밖에는 비대 성장하지 않는다.

땅 윗부분뿐만 아니라 땅 아랫부분도 1년 만에 죽는 것을 한해살이풀(나팔꽃, 옥수수)이라고 한다. 이는 일생에 한 번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종자에서 발아한 풀이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서 가을에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두해살이풀(시금치)이라고 한다. 이 중 해를 넘겨도 12개월 내에 시드는 식물을 한해살이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 해 중에 시드는 것을 '하생(夏生) 년생 초본'이라 하여 해를 넘기는 식물과 구별한다. 이에 비해 땅 아랫부분이 여러 해에 걸쳐 생존하면서 한살이 동안 몇 차례 이상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해살이풀(은방울꽃, 자리공) 또는 숙근초(宿根草)라고 하며, 땅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여러해살이풀을 상록 초본이라고 한다.

한해살이풀과 두해살이풀은 뿌리가 수염 모양으로 난 것이 많으나 여러해살이풀은 땅 아랫부분에 뿌리, 줄기, 잎이 변형된 덩이뿌리, 덩이줄기, 뿌리줄기, 비늘줄기가 있으며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많다. 야자나무과나 대나무 등은 본질적으로 풀에 속하는데 지상부가 몇 년 이상 살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지만, 비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특수한 풀이라고 할 수 있다. 분류학적으로 초본과 목본이 같은 분류군에 속한 경우도 있다(국화과, 콩과).

- ① 풀과 나무는 줄기가 초질인지 나무질인지로 구분한다.
- ② 시금치는 상록 초본으로 볼 수 없다.
- ③ 상록 초본은 한살이 동안 여러 차례 꽃과 열매를 맺는다.
- ④ 덩이뿌리, 뿌리줄기, 비늘줄기를 가지는 한해살이풀도 있다.
- ⑤ 대나무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풀에 속한다.

20.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외래어를 다듬은 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근 하루에 한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가 인기를 끌고 있다. → 공동할인가매
- ②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가 늘면 사업자의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그 비용은 전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암거래 소비자
- ③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벌이고 있다. → 끝장 승부
- ④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 백지 상태
- 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무선 인터넷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근거리무선망